

# 세제혜택 늘고 수익률 오르고... 다시 주목받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6월 평균 누적수익률 8.96%  
연금계좌 전환·한도 확대 등  
2019세법개정서 혜택 늘어  
혜택 수혜자 50대 이상 한정

만기를 채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면서 ISA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늘어났다. 수익률 호조 속에서 가입자 감소 등 부진을 겪고 있는 ISA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한국의 ISA는 투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ISA 누적수익률은 8.96%를 기록했다. 출시 후 3개월 경과된 25개사 204개 모델포트폴리오(MP)가 대상이다.

### ◆현대차·NH 등 ISA 수익률 호조

해당 MP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수익 추구형 A2(고위험)의 누적수익률은 무려 31.69%에 달했다.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어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31.19%, 우리은행의 글로벌우량주(초고위험)가

### 〈업권 간 기간별·MP별 수익률 현황〉

구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합계	
MP개수(개)	증권	13	28	31	35	19	126	
	은행	7	21	23	20	7	78	
	합계	20	49	54	55	26	204	
수익률 (%)	누적	전체	4.86	6.17	7.60	11.65	14.50	8.96
		증권	4.87	7.07	8.56	12.53	16.59	10.16
		은행	4.84	4.97	6.31	10.12	8.82	7.02
	1년	증권	1.95	2.55	1.29	0.77	-0.15	1.28
		은행	2.02	2.08	1.16	0.80	-0.37	1.25
		합계	1.45	3.88	6.65	9.84	12.21	7.22
	6개월	증권	1.45	3.88	6.65	9.84	12.21	7.22
		은행	1.08	2.99	5.76	8.95	10.42	5.83
		합계	1.45	3.88	6.65	9.84	12.21	7.22

/자료=금융투자협회

29.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6개월 수익률만 봐도 세 상품은 각각 19.13%, 19.19%, 19.81%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다.

ISA 운용회사 중 가장 실적이 좋은 금융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등 유형별 평균 누적 수익률이 15.75%에 달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12.93%), DB금융투자(12.91%) 등 증권사들이 은행과 보험사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수익률 집계 대상 중 77.9%에 해당하는 159개의 MP가 누적 5% 이상의 수

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68개는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MP는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ISA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어 들고 있다. 2016년 3월 ISA 출시 후 6개월 새 240만명을 넘었던 가입자수는 꾸준히 줄어 6월 말 기준 214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가입자 감소의 큰 문제로 '혜택 부족'을 꼽았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이 있고, 200만원이라는 비과세(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 ◆ISA, 연금계좌 전환 시 세제혜택 확대

하지만 이번 2019세법개정안에 따라 ISA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늘어났다. 만기를 채운 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저율과세(3.3%~5.5%)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ISA계좌 만기금액'을 더한 만큼 늘어나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즉,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 ISA 계좌 만기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났다.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돌린 가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입자는 50대 이상 가입자로 한정된다. ISA 세액공제 혜택 기간은 5년이다. 50세 가입자가 ISA에 5년 투자한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즉시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투자자의 경우 ISA 만기 후 30

여년을 연금계좌에 묵혀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는 "2,30대가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오랜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라면서 "50세 이후 가입자들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바로 연금계좌로 전환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가입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의 IS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세 혜택과 가입 조건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만능통장'에서 '만능 절세통장'이 되기 위해서다. 일본의 ISA인 NISA 성공이 대표적이다.

일본 NISA는 도입 4년 만에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입한 국민 투자 상품이 됐다.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된 한국 ISA와 달리 연령, 자산, 소득 등에서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국의 ISA는 일반형의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삼성증권

#### '3분 연금계좌' 시스템 오픈

삼성증권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3분 연금계좌'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IRP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삼성증권 모바일앱인 mPOP을 설치하면 된다.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앱을 통해 3분안에 IRP 또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단,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증명을 위해 가입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IRP, 연금계좌 개설 간편화와 함께 연말까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신규 입금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할 경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IRP, 연금계좌 각각 7천씩 최대 14잔까지 받을 수 있는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유진 기자

### 키움증권

####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키움증권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추가연계증권) 2종을 출시했다. '키움 제1069회 ELS'는 만기 3년, 예상수익률 세전 연 8%이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EUROSTOXX50지수, HSCEI지수다. 스태다운 조기상환형 ELS로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8%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4%(연 8%)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김유진 기자

# “3대 패스트푸드 고객사, HMR 급성장 타고 글로벌 도약”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가정간편식)

### IPO 간담회

#### 마니커에프앤지

지난해 영업이익 273% '고속 성장' 희망 공모가 주당 3400~4000원



31일 윤두현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니커에프앤지

닭고기 가공 브랜드로 성장한 '마니커에프앤지'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기존에 튼튼하게 사업 역량을 쌓아온 B2B 시장을 기반으로 B2C 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니커에프앤지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전략 및 향후 성장계획을 밝혔다.

마니커에프앤지는 8월 1~2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7~8일 청약을 진행한다. 신주발행 되는 공모 주식 수는 260만주이며 공모가 희망 밴드는 주당 3400~4000원이다. 상장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며 8월 20일 매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마니커에프앤지는 육류를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육가공 식품 전문 기업이다. 사료 및 농축산 밸류체인을 갖춘 이지바이오그룹 계열사로 팜스토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15년 업력을 통해 쌓아온 육가공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튀김류, 햄버거 패티류, 구이류, 육가공류, 훈제류, HMR 제품군 등 260종 이상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회사는 B2B 채널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시장조사를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기업에 제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국내 3대 패스트푸드(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프랜차이즈 기업과 3개 급식기업(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을 고객사로 두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마니커에프앤지는 매출 994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달성했다. 2017년 대비 각각 15.8%, 272.9% 성장한 수치다.

B2B 시장을 기반으로 B2C 채널 구축도 완료했다. 편의점과 온라인, 대형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채널에서 마니커에프앤지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가정간편식(HMR)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닭고기 가공 분야 간편식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니커에프앤지는 튀김, 구이, 훈제, 삼계탕 등 다양한 조리법 기반의 제품 라

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HMR 삼계탕 카테고리에서 '녹두 삼계탕', '전복 삼계탕', '누룽지 백숙'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마니커에프앤지는 이번 상장을 통해 모인 공모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64억2500만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기계장치 매입과 구축물 및 시설보수 등 설비 투자에 11억5200만원, 원자재구매 등의 운영자금에 11억4600만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두현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B2B 사업에서는 프랜차이즈와 급식업체를 위주로 고객을 늘려나가고 B2C에서는 가정간편식, 특히 에어프라이어 전용 제품을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진출한 해외 국가에서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현지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 생산해 수출규모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서울 4곳서 아파트 1862가구 분양

###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

여름 휴가철이지만 8월 중에 서울 4곳에서 1862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된다.

구별로는 ▲서대문 320가구 ▲동작구 153가구 ▲송파구 1389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서울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 분양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단지 분양연기→주택 공급 부족→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주택시장 재상승'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최근 삼호가은평구 응암동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백련산'은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69가구 모집에 2253명이 몰려 평균 32.65대 1의 경쟁

률을 보일 정도로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공급 물량은 줄어들어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제1주택 재건축사업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34~114㎡(일반분양 49~75㎡) 832가구 중 3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호선 무악재역 초역세권 아파트

로 단지 옆에는 안산초교가 있고, 단지 뒤로 안산이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 사당3구역 재건축 아파트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 514가구 중 41~84㎡ 1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송파구 거여동에 '호반써밋송파 1·2차'를 분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2블록(689가구)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4블록(700가구)에 위치한 다.

/이규성 기자 peace@